

설렘의 군산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붉은 말처럼 씩씩한 기운이 가슴에 차오르는 아침,
새해 첫 햇살이 마음의 결을 다정히 덮어줍니다.
근심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1월.
올해는 열정과 에너지로 반짝이는 날들을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2026년 1월호

Contents

04 기획	겨울철 재난 안전 대응
06 군산은 지금	군산시 가족센터
08 군산의 섬(島)	섬 중의 섬 무릉도원 : 선유도
10 군산의 노포	동양어묵
11 군산의 미(味)	겨울을 먹다, 겨울철 식재료 : 아귀
12 군산의 사(史)	산북동 화석산지
14 군산의 가(街)	군산시민문화회관
16 반가워, 2026	2026 트렌드 키워드
18 연말정산 가이드	2025 귀속 연말정산
20 소개합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
21 생활정보특특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솟품 등 소개
22 리포터 소식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리포터
23 도서관 소식	책 속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24 이달의 건강 소식	뇌졸중 증상 및 예방
25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6 의정	의회 주요소식
28 시정알림	시정소식 및 알림
30 문화산책	베르디와 바그너
31 문화공연	공연 · 전시소개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6. 01. 제345호 발행일 2025.12.24.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미디어홍보계장 김현정, 주무관 김미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의 겨울은 '빈틈'이 없습니다.

군산시는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비상대응

- 기상특보 시 24시간 상황관리 · 비상근무 체계 운영
- 관계 부서 합동 대응으로 현장 조치 강화

시설점검

- 노후주택 및 적설 취약 시설물 집중 예찰 및 점검
-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예방 대책 및 신속 대응

도로제설

-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결빙 구간 선제적 제설 추진
- 제설 차량 27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6개소, 모래함 358개소 운영
- 제설 자재 총 7,650톤 확보
(소금 6,970톤, 염화칼슘 570톤, 친환경 제설제 110톤)

교통대책

- 실시간 도로 교통상황 공유 및 시내버스 정상 운행 지원
- 항공 및 여객선 통제 시 체류객을 위한 특별 수송 대책 마련

**안전한 겨울나기,
우리 함께 만들어요.**

- 내 집 앞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빙판길 보행 시 낙상 사고에 유의하시고,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하세요.
- 겨울철 위험요소(결빙, 고드름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보온재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군산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발견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신고유형

- 대 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 붕괴 위험 등
- 한 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 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꽂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 소각 등
-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운영기간

2025. 12. 1. ~ 2026. 2. 28.
※대설, 한파 신고는 겨울철 대책기간(~26. 3. 15.)까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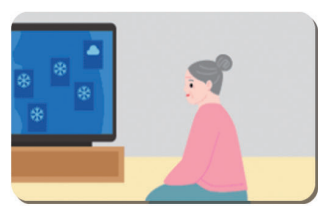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의
퀵메뉴를 통해 신고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 또는 119로 신고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20~100만원, 은누리
상품권) 및 마일리지*(1,000점) 부여
* 연말 적립 순위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1~3만원) 지급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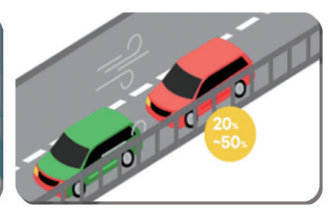
기상예보와 교통정보 확인



차량 수시 점검
(타이어 상태 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차 간 거리 2배 이상 유지
(앞 차 타이어 자국 따라 운전)



감속 운전·서행 운전
(특히 다리 위, 고가도로, 터널)



모든 가족의 웃음이 피어나는 곳, 군산시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서비스와 생활문화가 결합된 복합 거점 공간 조성

가족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 문화활동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경암동 신축 청사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축 이전은 지역 내 가족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총 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시설은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복합형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사회의 가족 복지 증진과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위치 : 군산시 구암3.1로 105(경암동)
- 문의 : 063-443-5300

층별 주요 시설 안내

연면적 2,096㎡ 규모로 조성된 신축 센터는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홀, 공동체 부엌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지원과 문화·돌봄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와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홀, 공동체 부엌 등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F



공유주방(요리체험, 공동체 행사 활용)

3F



가족상담실, 다문화 교육실, 다목적홀, 사무실

2F



공동육아나눔터, 가족교육실, 주민자율실

1F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

주요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군산시 가족센터는 신축 이전에 맞춰 시민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① 가족관계 향상사업

전문 가족상담, 부모·부부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가족의 갈등 완화와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② 가족돌봄사업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③ 가족생활 지원사업

취약계층 가정 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 생활지원을 강화한다.

④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공동돌봄 문화조성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군산형 가족공동체 모델'을 구현한다.

⑤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
새롭게 문을 연 가족센터에서
이웃과 연결되고,
가족의 행복을 더 크게 키워보세요!
”



섬 중의 섬, 무릉도원 '선유도'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군산군도의 대표 섬, 선유도를 소개합니다.
선유도는 경치가 워낙 아름다워 신선이 유람하며 즐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고군산군도 중심부에 자리해 서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풍광을 자랑합니다.

🗽 선유도 역사이야기

고려시대에는 이 일대에 수군 진영을 설치해 '군산진'이라 불렀고, 조선 태종 때에는 수군 만호영을 두었습니다. 이후 왜구가 군산도를 우회해 금강 인근으로 상륙하며 노략질을 일삼자, 세종은 수군 진영을 진포(현재의 군산)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진포가 '군산진'이 되었고, 군산도는 '고(古)군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심지로서 서해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여·송 무역의 기항지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최무선이 왜구를 물리친 진포해전의 전진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군 절제사가 관할하며 군사적 거점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치닫던 선조 30년(1597) 9월 21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 울돌목에서 승리를 거둔 뒤 선유도에 머물며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 선유도 볼거리

망주봉

망주봉은 선유도해수욕장 끝자락, 선유3구 입구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 봉우리입니다. 코끼리가 었드린 듯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배된 충신들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북쪽 한양을 바라보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망주봉'이라는 이름도 '임금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높이 152m의 망주봉 아래로는 초승달 모양의 고운 모래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만조 때 바닷물이 가득 찬 풍경과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난 모습 모두 탁 트인 절경을 선사합니다. 망주봉의 일출과 낙조는 선유도에서 손꼽히는 장관입니다.

명사십리 선유도 해수욕장

선유도는 예전에는 세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파도에 실려 온 모래가 오랜 세월 쌓이면서 지금처럼 하나의 섬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사십리해수욕장은 백사장 폭이 약 200m에 이르고, 수심이 멀리 나가도 2m 안팎으로 비교적 얇아 가족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물이 맑고 모래질이 좋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으며, 수심이 얇고 경사도 완만해 비교적 안전합니다. 특히 해수욕장 끝자락 갯벌에서는 썰물 때 바지락·모시조개·맛조개 등을 캐고, 소라를 줍거나 농게·달랑게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썰물 때는 바다 앞 솔섬까지 걸어서 왕래할 수 있어 갯벌 체험도 가능합니다.

오룡묘

선유도 오룡묘는 뱃사람과 어민들이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던 신앙의 공간입니다. 고려 인종 1년(1123) 송나라 사신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기록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룡(五龍)은 바다를 수호하는 신령으로 여겨졌으며, 오룡묘 신앙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해양 안전과 번영을 바라는 섬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옥돌해수욕장

옥돌해수욕장은 모래 대신 부드러운 옥돌(자갈)로 해변이 이루어진 이색 해변입니다.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풍광이 뛰어나며, 서해의 푸른 물결을 마주하며 걷다 보면 조용한 어촌마을 앞에 반달 모양의 해변이 펼쳐집니다. 독특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산책 코스와 사진 명소로도 사랑받습니다.



🚗 선유도 즐길거리

선유스카이썬라인(집라인)

선유 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높이 45m 타워에서 망주봉 입구 솔섬까지 약 700m 구간을 하강하는 집라인입니다. 짜릿한 스릴과 함께 고군산군도와 명사십리 선유도해수욕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표 액티비티입니다.

걸거나 자전거 타기 좋은 섬 : 하이킹의 천국

선유도는 '하이킹의 천국'으로도 불립니다. 선유도와 이웃 섬들은 면적이 크지 않고 급경사 오르막이 많지 않아, 자전거로 둘러보는 여행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고군산길(구불8길)'을 따라 걸으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건강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며 마주하는 풍광은 '섬 트레킹'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유람선

선유도 유람선은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선유도로 이동하며, 멋진 바다 풍경과 섬들 사이를 유람할 수 있는 해상관광 코스입니다. 유람선을 타면 약 1시간 20분 동안 항해하면서 크고 작은 섬들이 이어지는 고군산군도의 해안선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 위에서만 만나는 시원한 전망과 사진 명소를 즐길 수 있어, 선유도 여행을 색다르게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A코스] 선유2구 출항 → 선유1구(구불길) → 선유봉 → 인어등대 → 장자대교 → 장자할매바위 → 독립문바위 → 방축도 → 횡경도(거북바위) → 닭섬/ 신시도 → 선유2구 선착장

[B코스] 선유2구 출항 → 선유1구(구불길) → 선유봉 → 인어등대 → 관리도 → 독립문바위 → 방축도 → 횡경도(거북바위) → 닭섬/ 신시도 → 선유2구 선착장



반세기 역사가 빚어낸 0.3mm의 미학 동양어묵

전통의 장인정신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다

1973년 문을 연 '동양어묵'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군산을 대표하는 전통 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며 어묵의 본질을 지키는 장인정신은 오늘날까지 전국의 미식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동양어묵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제품은 단연 '종이어묵'입니다. 약 0.3mm라는 놀라운 두께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어묵 제조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갓 구워냈을 때 느껴지는, 담백하고 따뜻한 어묵의 풍미는 구이나 탕 등 어떤 요리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르 꼬르동 블루 출신 셰프, 가업에 혁신을 더하다

현재 동양어묵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시드니 출신의 3대 계승자가 가업에 참여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포함해 국내외 유수의 현장에서 20년간 경력을 쌓아온 전문 셰프의 감각은 전통 기술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현대적인 요리 연구 경험을 접목하여 제품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군산 식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R&D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산의 맛, 서울의 중심에서 스토리를 전하다

동양어묵의 행보는 군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울에 마련한 브랜딩 매장은 군산에서 생산한 어묵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소개하는 브랜드 소름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군산 제조업의 기술력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동양어묵은 군산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군산 전통 식품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정보]

- 주소 : 군산시 중앙로 48(대명동)
- 문의 : 063-445-9364



못생겨서 버려졌던 '아귀'! 알고 보니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물

바다의 천덕꾸러기, 아귀의 서러운 이름 이야기

'아귀'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계율을 어기고 악업을 저질러 굶주림의 형벌을 받는 귀신을 뜻하는 아귀(餓鬼)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가장 흔합니다. 이는 입이 몹시 크고 다소 흉하게 보이는 아귀의 외형과 맞물려 전해집니다. 한편, 큰 턱(顎, 악)과 위(胃, 위)를 지닌 생김새를 가리키는 '악위(顎胃)'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귀는 지역에 따라 물평, 물텀벙, 망청어, 꺾정이 등 여러 방언으로 불리는데, 그중 '물텀벙'이라는 별명에 가장 서러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 어부들은 아귀의 모양이 낯설고 못생겼다고 여겨 그물에 잡히면 재수가 없다며 바다에 '텀벙'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내어 붙인 이름이라는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아귀가 얼마나 천대받았던 존재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반전 매력의 소유자, 아귀의 숨겨진 영양가

이렇게 천대받았던 아귀지만, 생김 모습과 달리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아귀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라 건강에 좋으며, 무와 파 등의 야채를 넣고 끓인 아귀탕은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귀의 물컹물컹한 껍질은 씹을 때 독특하고 묘한 감촉을 주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흰색 살은 매우 담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습니다. 특히 아귀의 간(肝)은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고급 식재료로 알려진 아귀 간은 녹진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달달한 맛이 일품입니다. 영양가가 매우 높아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프랑스의 푸아그라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바다의 푸아그라'로 불립니다.

버릴 것 없는 칠색(七色) 진미를 가진 슈퍼스타

아귀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생선'입니다. 아귀가 지닌 일곱 가지 부위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요리 재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귀는 늑골(갈비뼈)이나 비늘이 없어 몸이 물컹하고 미끄러워 조리하기 어렵지만, 숙련된 손질을 거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쫄깃한 껍질, 최고의 별미인 간, 시원함을 더하는 아가미, 그리고 난소, 위, 꼬리지느러미, 볼때기 살까지, 이처럼 7가지 부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귀 하면 군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695톤의 아귀가 군산 바다에서 잡히며 주요 생산지의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겉모습 때문에 천대받았지만, 알고 보면 귀한 영양과 맛을 가진 군산 바다 보물, 아귀! 추운 겨울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귀찜 만드는 방법

- 기본재료** 아귀 1kg, 콩나물 600g, 미나리 1줄, 대파 1대, 양파 1/2개, 청양고추 2개
 - 양념재료** 고추장 6큰술, 고추장 1큰술, 간장 3큰술, 다진마늘 2큰술, 다진생강 1/2작은술, 설탕 1큰술, 맛술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물 또는 멸치육수 1.5컵, 전분물(감자전분 2큰술 + 물 4큰술)
1. 아귀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물기 빼고, 소금·맛술·후추·생강으로 10분 정도 밑간해 둡니다.
 2. 넓은 냄비에 콩나물을 깔고(바닥에 두툼하게), 물/육수 1.5컵을 붓습니다. 양파는 채 썰어 함께 넣어주세요. 콩나물 위에 아귀를 올리고 뚜껑 덮어 중불 8~10분 익혀주세요.
 3. 양념장의 80%를 먼저 넣고, 대파·고추를 넣은 뒤 중불에 5분 더 끓입니다. 간을 보고 남은 양념으로 조절합니다.
 4. 전분물을 2~3번 나눠 넣고 30초~1분만 끓여 걸쭉하게 만듭니다.
 5. 불 끄기 직전에 미나리 넣고 10~20초 숨만 죽인 뒤,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저기... 혹시... 그거 아세요?

군산시 학예연구사
나병호



바다와 함께하는 삶, 갯벌에 담긴 땀, 강과 같이 흘러간 아픔 등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군산에는 사람이 살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갔던 고생물에 대한 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군산시 산북동에 위치한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해당하며, 280여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은 두 발로 걸었던 초식공룡, 네 발로 걸었던 초식공룡, 육식공룡, 익룡입니다.

이들 발자국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발자국이 아니라 공룡이 살아가고, 걸어간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발로 걸었던 초식공룡 발자국의 경우 11개의 보행렬(걸어간 흔적)의 발견은 두 발로 걷는 초식공룡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활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Caririchnium이라 명명된 공룡의 발자국 중 가장 큰 발자국(62cm)이 발견되어 Caririchnium의 최대크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무지개떡처럼 층별로 구성되어 있고, 층별로 육식공룡, 초식공룡, 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견된 발자국 아래 다른 고생물 발자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기술의 발전과 주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발자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가 발견된 것은 201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재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앞 도로공사 중 동산의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드러났습니다. 마침 서해안 지역 지질조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견신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견신고 이후 관계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前문화재청)과 함께 발자국 수습조사를 진행하여 2014년 6월 국가지정 자연유산(前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보호각 설치, 보존처리 등을 추진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분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층에서 멀리서만 관람 가능했던 전시환경을 가까이에서 화석산지를 관람할 수 있게 1층 전시시설 설치, 실감형 전시, 미공개 화석 공개 등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군산의 자연유산 중 고생물 및 고환경을 볼 수 있는 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군산에는 서해안의 지질을 대표하는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 '군산 말도 습곡 구조'와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생장추 조사로 조사된 나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등 다양한 자연유산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직 근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 자연유산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의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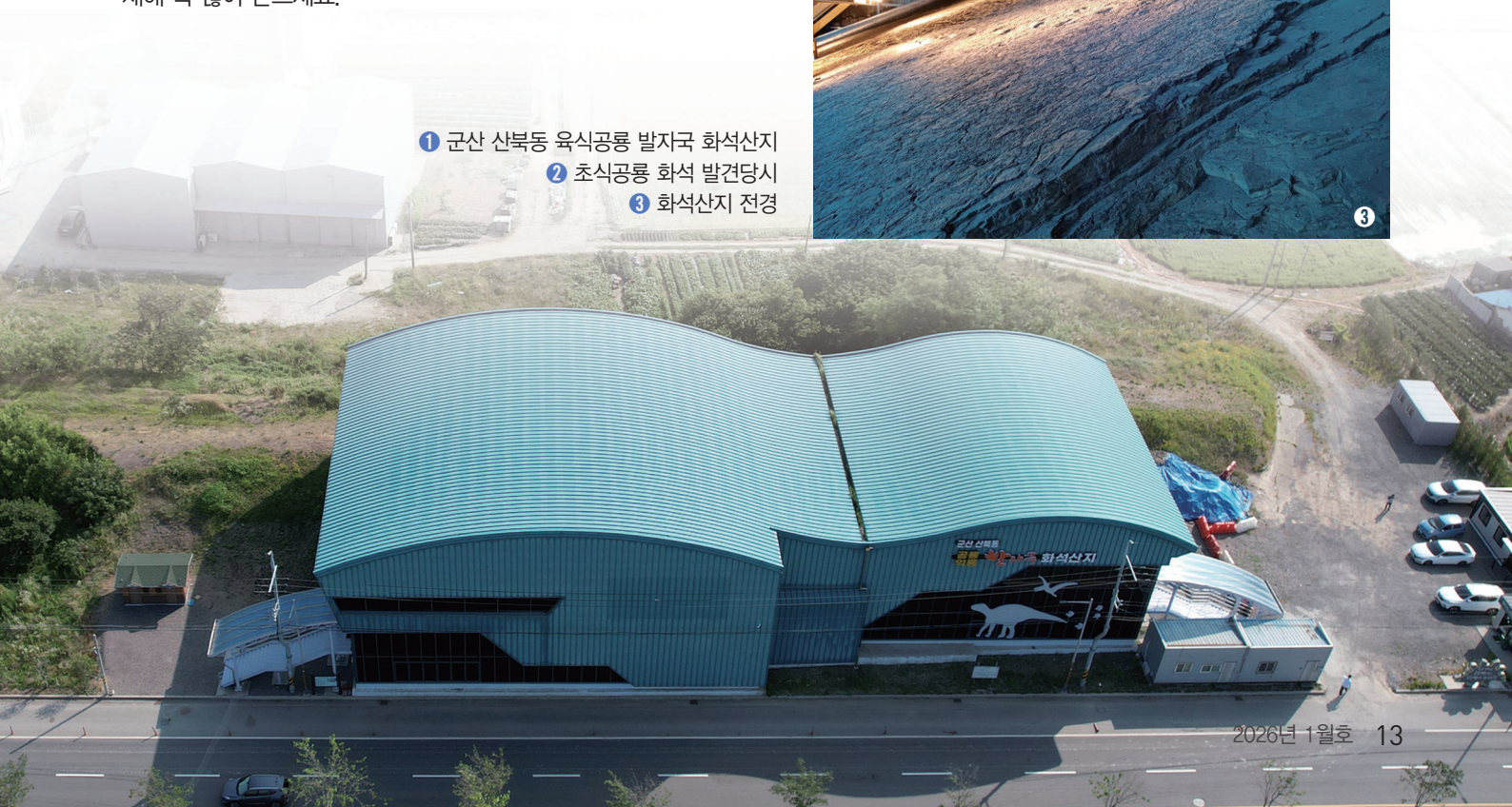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힘차게 나아가는 붉은 말처럼 독자님들과 시민분들의 2026년이 언제나 밝고 힘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① 군산 산북동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② 초식공룡 화석 발견당시
③ 화석산지 전경





이야기가 발견되는 곳, 예술과 일상이 교차하는 곳,
지혜가 교환되는 곳, 대화에서 배움이 시작되는 곳.

다시 태어난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 '군산시민문화회관'의 화려한 귀환

군산시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은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 김종업(1922~1988)의 유작입니다. 옛 건물의 건축적 원형을 소중히 보존하면서도, 오늘날의 감각과 현대적인 공간 언어를 조화롭게 덧입혀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지붕과 하늘로 뻗은 기둥, 전면의 시원한 유리창과 원형의 기하학적 요소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인상은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구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낸 김종업 건축가 특유의 미학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역사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때 잠들어 있던 이 공간은 이제 '2024, 2025 북페어'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곁에서 활기차게 숨 쉬고 있습니다.

3층

- **GCC 라운지:** 창작의 몰입과 느리게 쉬어가는 시간이 공존하는 라운지
- **그래픽 숍:** 출판사 프로파간다가 운영하는 건축과 도시, 디자인, 예술 분야의 책이 있는 아트북 서점



2층

- **너른홀:** 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무대형 공간
- **카페 GCC:** 음료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로비에서 시작해 너른홀, 야외 벤치, 3층 라운지 전체에서 식음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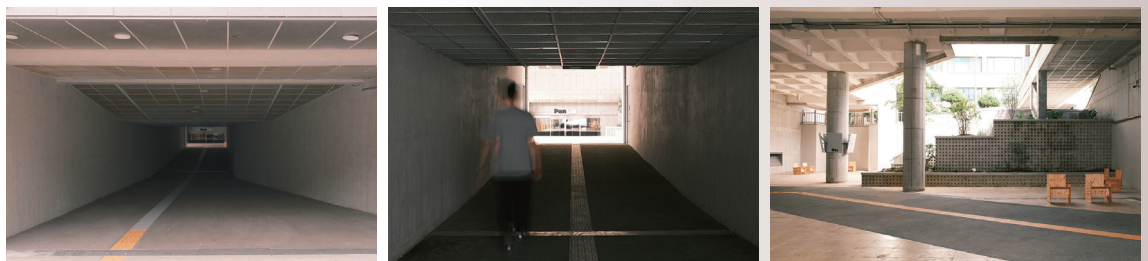
1층

- **GCC 아카이브:** 군산회관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담은 개방형 아카이브실
- **판:** 전시 공간 및 시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세미나실



회관길

새롭게 조성된 군산시민문화회관으로 들어서는 터널형 동선은 회관의 역사와 현재의 소식을 전하는 안내자이자, 미디어아트 등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회관이 됩니다. 야외에는 기존의 원형 계단 외에 인도에서 곧장 회관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한 '회관길'을 걸어 선쿰(Sunken)을 지나면 1층 '판'과 2층 '카페 GCC'와 '너른홀'로 이어집니다.



AI가 바꾸는 2026 우리 일상은 어디까지 달라질까?

2026년, 우리는 AI가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은 물론, 소비와 관계의 풍경까지 달라지며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가 더 중요해진다. 거대한 기술의 가속 속에서, 사람의 판단과 감각은 어디까지 필요한 걸까.

01 **휴먼 인 더루프**
Human-in-the-loop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

AI가 전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인간이 개입해 판단을 보정하는 구조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비유처럼, 인간의 감성과 판단력 위에 AI의 계산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역량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웃프다’, ‘좋은데 싫어...’처럼 기분이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필요나 효율보다 나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데서 소비의 이유를 찾는 흐름이 가속된다.

필코노미
Oh, my feelings!
The Feelconomy

02

03 **제로클릭**
Results on Demand:
Zero-click

“클릭하지 않고도 원하는 걸 살 수 있어!”

검색하거나 클릭하기 전에 AI가 먼저 결과를 제시하는 환경이다.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불안할수록, 준비가 나를 지켜.”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 ‘준비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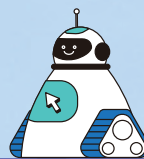
레디코어
Self-directed
Preparation:
Ready-core

04

05 **AX조직**
Efficient Organizations
through AI
Transformation

“부서보다 프로젝트! AI로 더 빠르게 일해.”

AI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전통적인 조직 체계가 와해되는 현상이다. 프로젝트별로 업무 중심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통해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한다.

2026년은 말의 해로, 제시어는 '호스파워(Horse Power)'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말의 추진력처럼, AI가 만들어낸 '가속'이 일과

삶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다만 속도가 커질수록 중요한 건 더 분명해진다.

어디로 달릴지, 언제 멈출지, 무엇을 지킬지—그 선택의 순간에는 결국 사람의 판단과 책임, 감각이 필요하다.

결국 2026년의 호스파워는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잘 달리기 위한 방향과 통제',

그리고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하이브리드 역량을 강조한다.



"이제 대세는 없다. 찰나의 순간을 즐길 뿐!"

일상이 잘게 쪼개진 디지털 조각들로 구성되는 시대다.

숏폼, 짤, 밈, 버추얼 아이덴티티 등

픽셀 단위 경험이 삶의 기본 문법이 된다.

픽셀라이프

Pixelated Life

06

07

프라이스 디코딩

Observant Consumers:
Price Decoding

"이 가격, 뭐가 포함된 거지? 다 뜯어보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 의심'을 통해 더 똑똑해지는 흐름이다.

"건강도 실력이다 내 몸을 똑똑하게 관리해."

IQ와 EQ의 시대를 지나 HQ의 시대다.

건강을 하나의 '지능'으로 다루는 시대를 의미한다.

건강지능 HQ

Widen your Health
Intelligence

08

09

1.5가구

Everyone is an Island:
the 1.5 Households

"혼자 같지만, 완전한 혼자는 아니야."

1인 가구와 전통적인 가족 가구 사이의 중간 형태다.

관계는 느슨해졌지만 완전히 혼자도 아닌,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균형을 찾으려는 생활 형태다.

"결국 믿을 건 근본-기본과 진정성."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본기와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오래된 브랜드, 진정성, 장인정신 같은 '원초적 신뢰'가 재평가된다.

근본이즘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10

놓치지 마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놓치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 1. 15.(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
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이런 혜택이 새로워졌어요!

1. 자녀 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025. 3. 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3.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2025. 7. 1.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6. 기부한도 금액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1.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2.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3.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2026년 말이 福을 심고 온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1번이면 연말정산 걱정 끝!


고향사랑기부혜택

1.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2. 기부한 금액의 30%로 답례품몰에서 쇼핑 가능


10만원이 13만원으로 돌아오는 손해 없는 제도!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 금액 16.5% 세액공제)

기부하러 가기



답례품 구경하기



소개합니다 |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



바다의 향긋함, 새로워진 공간에서 만나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 신축개장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어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시설을 허물고 현대적인 판매 시설을 신축하여,
이제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을 맞이합니다.

“더 깨끗해진 공간, 더 믿음직한 품질!
군산의 명품 건어물을 경험하세요”



방문 전 확인하세요!

위 치 : 군산시 내항2길 216

영업시간 : 07:00 ~ 20:00

휴 무 일 : 매주 화요일

문 의 :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442-4822



생활정보 톡톡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톡톡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Q 전통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전통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보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Q 요즘 전통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는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A 전통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톡톡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YouTub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군산섬캠핑#낭만캠핑
#군산관리도캠핑장#군산무녀도오토캠핑장



#군산배달업
#군산배달의명수#공공배달업



#군산공공자전거
#은파호수공원#힐링



2025 군산시 기차만
군산에서
함께 즐겨요
#군산항1981
#군산여객터미널#군산레트로#군산여행

군산 근대선교활동의 역사를 담다. “군산선교역사관”

시민리porter 이선옥

군산시 구암동 언덕길에 오르니, 세풍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장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2일에 그 포문을 연 “군산선교역사관”의 첫인상은 근대교육의 상징인 멜볼딘 여학교를 본떠 건축해서인지 외화속의 기숙학교가 떠올랐습니다. 3층 건물 중 1, 2층의 전시관에는 지역 내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의 자료로 성경책, 서적, 망원경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으로 무료 개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민간 위탁운영 하여 입장료가 유료로 전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언덕길을 따라 오르면 “3.1운동100주년기념관”이 있어, 선교 및 역사를 돌아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해 봅니다.

군산시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전면 시행

시민리porter 조아현

군산시가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우편 고지서 대신 위반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과태료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우편 방식은 실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확인 사례가 많았고,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우편 발송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 및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군산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필요한 서버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4월부터 새로운 전자고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꿈의 무용단 군산, '바람의 꿈, 노래하다' 공연 성황

시민리porter 고덕자

군산시민예술촌이 지난 12월 6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꿈의 무용단 군산 제3회 정기공연 '바람의 꿈, 노래하다'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꿈의 무용단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이 운영하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움직임을 창작하고 공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쌓아온 창의적 움직임과 표현 능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며, '바람'을 중심 소재로 삼아, 감각·움직임·상상을 결합한 창작 무용 작품으로 구성돼 많은 시민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바람의 시작을 담은 '피어나는 바람' ▲몸짓을 통해 감정을 노래하는 '바람의 노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형상화한 '바람의 꿈'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노래' 등으로 단원들의 감정과 경험을 춤의 언어로 풀어내 갈채를 받았습니다. 공연을 감상한 시민들은 “이번 공연이 지역 아동·청소년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산타와 함께하는 군산철길마을

어린이리porter 박하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어린이리porter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산의 명소 중 하나인 철길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있었네요. 빨간 모자를 쓰고 하얗고 풍성한 솜사탕 같은 수염을 기른 산타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철길마을을 관통하는 철길 산책로에는 알록달록한 조명들과 맛있는 군것질거리들이 줄을 지어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70~80년대에 입고 다녔던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학생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 이라며 엄마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한가득 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달고나를 만드는 시간 동안 추위는 모두 날아가 버렸고 제 마음속은 따뜻한 봄날만 같았습니다. 올겨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과 먹거리가 가득한 군산 철길마을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차에 올라탄 산타에게 꼭 인사하기! MERRY CHRISTMAS~

2026년 일출 장소 추천!

어린이리porter 송서연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해 군산의 일출 명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산의 일출 명소로는 무녀도와 대장봉 비응항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녀도는 섬의 모양이 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름 지어진 섬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맞이를 이곳 무녀도의 한 펜션에서 하였는데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와 바다의 윤슬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일출을 경험하여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두 눈 가득 담고 싶으시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 항구도시인 군산에서 아름다운 윤슬과 함께 수평선위로 웅장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관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6년 올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달의 책

책 속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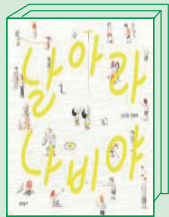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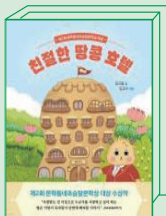
무서운 괴물
이순옥(글, 그림) | 반달(킨더랜드) | 2025
열네 괴물들이 출전한 무서운 대회, 가장 무서운 괴물은 누구일까요?

날아라 나비아

노인경(글, 그림) | 문학동네 | 2025
너를 위하는 나의 마음과 나를 아끼는 너의 마음이 '여기'에 모일 때, 후우우우~ 우리는 모두 사뿐 날아오를 수 있어!



초등학생



친절한 땅콩 호텔
임고을(글, 김규애(그림)) | 문학동네 | 2025
알고 보면 나도 친절하다고
마음이 표현 안되는 것뿐이라고!

겨울과 봄 사이

박솔기(글), 해마(그림) | 북멘토 | 2025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청소년



미래가 보이는 일기장
고혜원 | 다이브 | 2025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단14일뿐. 미래를 알게 된 순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내 미래를 바꾼 게... 너야?!'

성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천선란 | 허블 | 2025
천국은 바라지도 않아. 어디든 저승의 남은 땅에 같이 있거면 해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밤과 나침반

하와이 대저택 | 논픽션 | 2025
니만의 북극성을 향해 가라.
그것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다.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2025년 겨울독서교실 운영

<p>시립도서관 ☎454-5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26.~1. 30. 초등 2~4 (16명) 모집기간 : '26. 1. 12. 10:00~ 운영내용 : 케데헌과 떠나는 신화여행(자개거울 만들기, 우리나라 민간신앙 알아보기 등)
<p>금강도서관 ☎454-56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2.~1. 16. 초등 2~4 (16명) 모집기간 : '25. 12. 30. 10:00~ 운영내용 : 알쏭달쏭 외글외글 내 마음은? (감정그림책과 마음돌봄, 키즈 성장요가, 걱정인형 만들기 등)
<p>늘푸른도서관 ☎454-59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9.~1. 23. 초등 2~4 (15명) 모집기간 : '26. 1. 7. 10:00~ 운영내용 : 새 학기, 새 친구!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독후활동 및 동화요리)
<p>설림도서관 ☎454-5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2.~1. 16. 초등 3~4 (16명) 모집기간 : '25. 12. 30. 10:00~ 운영내용 : 어린이 생활 안전교육 (어린이 미디어안전, 유괴예방, 호신용품 만들기)
<p>산들도서관 ☎454-58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2.~1. 16. 초등 1~3 (12명) 모집기간 : '25. 12. 22. 10:00~ 운영내용 : 꼬마화가 미술탐험대(만화키링, 별밤액자, 레진반지 만들기)

- 모집방법 :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모집학년 : 2025년도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겨울방학특강 운영

<p>시립도서관 ☎454-5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20.~2. 13. 초등학생, 성인 (66명) 모집기간 : '25. 12. 22./10:00~ 운영내용 : 마술, 보드게임, 동화요리, 다도클래스, 타로클래스
<p>금강도서관 ☎454-56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20.~2. 12. 유아·초등 (46명) 모집기간 : '26. 1. 5. 10:00~ 운영내용 : 과학교실, 그림책놀이, 미술 수업
<p>늘푸른도서관 ☎454-59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5. 1. 8.~2. 4. 유아·초등 (46명) 모집기간 : '25. 12. 22./10:00~ 운영내용 : 유아책놀이, 동화요리, 과학교실, 창의수학
<p>설림도서관 ☎454-5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9.~2. 11. 유아·초등 (46명) 모집기간 : '25. 12. 30./10:00~ 운영내용 : 문해력수업, 영어놀이, 쿠킹클래스, 방송스피치
<p>산들도서관 ☎454-58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및 대상 - '26. 1. 12.~2. 7. 유아·초등, 성인 (40명) 모집기간 : '25. 12. 16./10:00~ 운영내용 : 원예테라피, 쿠킹클래스, 전통공예, 키즈댄스

- 모집방법 :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수강료 및 재료비 별도
- 모집학년 : 2025년도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기온 뚝, 겨울 불청객 뇌졸중 증상 및 예방수칙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조기 증상

-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다.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1.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2.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게 얇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5.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 보건소 예방접종실 454-4950

“지금 우리 동네는”

옥구읍, 쾌적한 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 펼쳐

옥구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성호)가 겨울을 맞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읍내 주요 도로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지난 12월 9일, 주민자치 위원들과 읍사무소 직원 20여 명은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배수로 주변 정비에 힘을 모았다. 특히 통행이 잦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옥산면, 정성으로 버무린 '사랑의 김장' 전달

옥산면 자생 단체는 지난 12월 8일부터 사흘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옥산면 청암산축제위원회와 14개 자생단체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민과 직원 70여 명은 김치 600포기를 직접 담갔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세대 180곳에 전달하며 훈훈한 겨울 선물을 선사했다.



서수면 (주)동우팜투테이블, 라면 310박스로 희망나눔

서수면 소재 (주)동우팜투테이블(대표이사 김태호)이 12월 17일, 서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라면 310박스(500여만 원 상당)를 맡기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수면은 이날 전달받은 라면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가깝게,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운영 시작

조촌동행정복지센터가 12월 29일부터 신청사(부곡1길 40)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임산부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중앙동 레비뉴어린이집, 고사리손으로 실천한 이웃사랑

중앙동 레비뉴어린이집(원장 두은희)은 지난 12월 9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52,360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원아 48명이 각자 저금통에 모은 용돈으로 마련되었다. 전달식에 참여한 1세 반 어린이 20명은 정성껏 모은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건의안을 소개합니다.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건의안

김영자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는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반드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실 증가로 정책 실효성 저하와 지자체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형 공급, 도심 생활권 중심의 입지 및 인프라 개선,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입주자격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위해 ▲중형·대형 평형과 도심 생활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으로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건의안

한경봉 의원은 지난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군산시는 단기간에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했다고 했다고 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완제품·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및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확대, 연구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시대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내 유일 거점이므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시설 구축 공간 부족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부지의 선제적 확장과 추가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래 100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을 즉시 추진할 것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배정 및 예타면제 등 혜택 확대와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공사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군산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77억 원 중 시비 1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단지 조성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센터 및 장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차원의 핵심 인력양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연 사유 ▲출연금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받고 "과거 출연금 증액 당시 국비 확보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시비가 투입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번 공사 지연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교육과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출연금 환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간	회의 일수	주요내용
제280회 임시회	1. 26.(월) ~ 2. 5.(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1회 임시회	3. 9.(월) ~ 3. 19.(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82회 임시회	4. 13.(월) ~ 4. 16.(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제283회 제1차 정례회	6. 22.(월) ~ 6. 25.(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84회 임시회	7. 1.(수) ~ 7. 2.(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식(전반기 원구성)
제285회 임시회	7. 14.(화) ~ 7. 23.(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86회 임시회	8. 25.(화) ~ 9. 3.(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87회 임시회	10. 12.(월) ~ 10. 22.(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26년 업무실적 및 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8회 제2차 정례회	11. 10.(화) ~ 12. 18.(금)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9일간) • 2026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회의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 회의일수 102일(정례회 43일, 임시회 59일)

*본 계획(안)은 의회 일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주요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 아이디어가 군산의 정책이 된다! '시민정책소통단' 출범

군산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담은 '시민 정책소통단'을 신설·운영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해 온·오프라인 연계한 소통플랫폼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시는 분산된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며,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기획예산과 454-2304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한번에! '군산스크린파크골프'개장

군산시니어클럽이 공설시장 2층에 '군산스크린파크골프'를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이 시설은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복합 여가 공간으로, 4개의 스크린 룸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용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일요일 휴무), 이용료는 시간당 8천 원이다.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 경로장애인과 454-3187



군산 골목상권의 부활!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지정

군산시는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로 늘어났으며, 특히 대야면은 군산 최초의 면 지역 지정 사례다. 지정 구역에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2026년까지 상점가를 지속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기반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 일자리경제과 454-2683



맞춤형 배출 가능! 2026년부터 음식물 용기 5종으로 운영

군산시가 시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10ℓ와 60ℓ 규격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격(5·20·120ℓ) 사용 시 발생하던 소규모 점포의 배출 불편과 대용량 용기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형 음식점과 상가는 업장 규모에 맞춰 적정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시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 자원순환과 454-3462



INFO BOX

군산시민에게
유익한정보를
소개합니다.

2026년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개시

판 매 일 2026. 1. 2. 09:00 ~
구매한도
- 모바일·카드 : 월 최대 50만 원
- 종이(지류) : 월 최대 10만 원
(1961년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만 구매 가능)

구입방법

- 모바일·카드 :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 설치 충전
- 종이(지류) : 신분증 지참하여 판매은행 방문 구입
(대리 구입불가)

할 인 율 10%

☎ 일자리경제과 454-2660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안내

모금기간 2025. 12. 1. ~ 2026. 1. 31.

참여대상 각 기관, 기업체, 시민 등

참여방법

- 농협은행 508-01-042675
- 전북은행 505-13-0311109
- 예금주 : 전북공동모금회

접수기관 군산시청(복지정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정책과 454-3085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6.1. ~ 12.

사업대상 군산시 내 주택, 상가, 공장 공공건물 등
대상자 선정완료(2025. 5.)

주요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참여기업

- 대표번호 : 063-452-6167
- 태 양 광 : (주)세원이엔에스, 해동에너지(주)
- 태 양 열 : 미래이엔지(주)
- 지 열 : (유)우경에너지

지원내용

- 정부(국비) 및 지자체(시비)가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신재생에너지과 454-4422, 442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신청기간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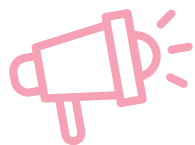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70세이상
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자진반납자
(2종소형, 원동기 면허 포함)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교통카드 충전

제출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교통행정과 454-3775



2026년 군산-제주 항공노선 동계 운항 안내

운항기간 2026.1. 1. ~ 3. 28.

운항횟수 하루 2회 운항

시 간 표

운항노선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요일
군산 → 제주	12:35	13:35	매일
	16:55	17:55	
제주 → 군산	10:55	11:55	
	15:00	16:00	

☎ 교통행정과 454-377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기간 2026. 1. 1.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무료 접종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음)

☎ 감염병관리과 454-4950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안내

운영기간 연중

운영장소 종합민원실 민원센터내 상담실(시청 1층)

상담분야 법률, 법무, 건축법률,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상담비용 무료

구분	상담내용	상담시간
법률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사항	둘째·넷째 월요일 17:00 ~ 18:00
법무	건축, 등기, 전세 등 법무에 관한 사항	매주 화요일 16:00 ~ 17:00
건축 법률	건축 가능 여부, 인허가 절차 등	매주 수요일 14:00 ~ 16:00
소비자 고발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매주 수요일 16:00 ~ 17:00
세무 회계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	매주 목요일 16:00 ~ 17:00

☎ 열린민원과 454-2532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안내

대여기간 연중(평일)

대여자격 군산에 소재지를 둔 자(직장 포함)

대여장소 군산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여품목 충전 임팩트드라이버 등 21종 생활공구
(가구당 최대 3일간, 3점)

☎ 열린민원과 454-2533

베르디와 바그너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는 1813년 동갑내기 태어나 19세기 오페라계를 이끈 라이벌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활동했으나, 직접적인 만남이나 상호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음악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적 경쟁이나 신경전에서 비롯된 라이벌 구도가 아닌, 예술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순수한 미학적 대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르디는 인간의 마음에 집중한 작곡가로, ‘극적 현실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청중에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녔으며, 멜로디 중심의 오페라를 다수 작곡했습니다. “축배의 노래”, “여자의 마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들이 많습니다. 특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당시 오스트리아로부터 통일을 희망하던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며, 현재까지도 제2의 이탈리아 국가로 여겨질 만큼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독창이 중심이었고 합창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베르디는 합창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이탈리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일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Viva VERDI(베르디 만세!)”라는 구호가 유행했는데, 이는 베르디에 대한 찬양과 동시에 당시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Viva Vittorio Emanuele, Re D’Italia)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의미였습니다. 베르디는 “나는 인간을 그리고 싶다. 인간의 감정을 무대로 옮기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그너는 베르디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예술적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문화적 성향과도 부합했습니다. 감성을 중시하는 베르디는 이탈리아 문화와 조화를 이루었고, 철학을 중시하는 바그너는 독일 사상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바그너는 음악을 넘어 오페라, 나아가 “총체예술(Gesamtkunstwerk)” 즉, 음악, 문학, 무대, 철학이 융합된 거대한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와는



군산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명근

달리 바그너의 작품은 특정 장면을 위한 아리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길게 반복되는 음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케스트라를 중요한 서사적 요소이자 철학적 주석으로 활용합니다. 바그너는 직접 대본을 집필할 정도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으며, ‘니벨룽의 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과 같은 방대한 서사와 신화적 소재를 다룬 작품을 통해 음악사에 중요한 ‘Leitmotif’(유도동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 사건, 개념을 음악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그너는 오페라를 관객의 지적 탐구를 자극하는 심오한 체험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바그너는 독일에서 요하네스 브람스와 대척점을 이루었으며, 나치의 영향으로 펠릭스 멘델스존과도 대비되는 인물로, 그의 삶과 작품은 다층적인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바그너는 여러 주제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인물이기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르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치스럽고 자아도취의 삶을 산 바그너보다는 이타적이고 인간적인 베르디에 좀 더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군산 시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오페라는 오스트리아의 극심한 탄압과 검열로 인해 애국심 불타는 작품에서 방향을 틀어 인간의 감정과 삶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큰 음악적 유산을 남겼으며, ‘라 트라비아타’를 포함한 그의 중기 3대 걸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여인’이라는 뜻을 지닌 이 오페라는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원작으로 합니다. 당시 사회의 위선과 희생적인 여성상을 아름다운 베르디의 선율 속에 담아낸 ‘라 트라비아타’는 오늘날까지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오페라입니다. 비교적 유명한 곡들이 많아 접근성이 높으며, 친절한 해설도 제공될 예정이므로 충분히 이해하시며 즐겁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1 2026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일시 2026. 1. 1.(수) 06:45 ~ 08:30
장소 선양동 해돋이 공원
내용 덕담, 새해인사, 먹거리 나눔, 난타 등 공연
주관 사) 군산발전포럼
 ☎ 관광진흥과 454-3303

02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특화프로그램 「봄밤의 모든 것」 백수린 작가 초청 강연

일시 2026. 1. 13.(목) 19:00~21:00
장소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지하1층)
대상 사전접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화접수)
신청접수 백수린 작가
접수기간 2025. 12. 30.(화) 10:00 ~
 ☎ 군산시립도서관 454-5632



03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오페라-라트라비아타」

일시 2026. 1. 22.(목) 19:30
장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예매처 티켓링크
티켓예매 2025. 12. 31. 10:00~ (*예매 일정은 변동가능)
 ☎ 군산시립교향악단 454-5556

03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관 주요 전시

기간	전시명	장소	내용
2025. 11. 4. ~ 2026. 3. 29.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 불멸의 의용, 영원의 불꽃 -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순직 군산의용소방대 제80주기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활동 전시
2025. 11. 18. ~ 2026. 2. 8.	근대미술관 자체 기획전	근대미술관	소장품 전시
2025. 12. 9. ~ 2026. 2. 8.	시민열린갤러리 이은숙 개인전	시민열린갤러리 (박물관 2층)	문인화 작품 전시
2025. 12. 16. ~ 2026. 2. 15.	장미갤러리 신순선 개인전	장미갤러리(2층)	한국화 작품 전시
2025. 11. 16. ~ 2026. 3. 29.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나라를 위해 싸운 여성들, 길을 만든 여성들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여성 독립운동가 소개
2025. 11. 26. ~ 2026. 4. 26.	가마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일제강점기 쌀과 함께 수탈되었던 가마니

☎ 박물관관리과 454-7873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

2025. 11. 13. ~ 2026. 5. 16.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금지사항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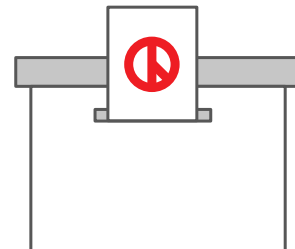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례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등에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사례 등

•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